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9월 14일 (제 1323 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한 사람만 변해도

나는 나를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 사람이 많건 적건, 그건 나와 무관이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 경우가 그렇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만영 장로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갈 만큼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었다. 그가 나를 만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그로 인해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지금 변화된 나 하나로 인해 세계가 복음화되고 있다.

세기의 부흥사 빌리 그래함, 그는 1934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열린 모데카이 햄 목사의 부흥집회에 참석했고, 그날 예수를 영접했다. 회심한 한 청년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자라나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무디는 또 어떤가. 보스턴의 어느 구두 가게 점원으로 일하던 무디에게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 찾아와 가게 뒷방에서 눈물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 자리에서 무디는 주님을 영접했다. 무디는 후에 19세기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고, 그의 사역은 영국과 미국에 대부흥을 일으켰다.

존 웨슬리 역시 런던 올더스게이트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여 변화되었고, 영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며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

그렇다.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세상은 변한다.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었고, 요셉 한 사람이 애굽과 동족과 가족을 살렸다. 에스더 한 여인으로 인해 유대민족의 운명이 달라졌고, 룻으로 인해 그의 가문이 일어났으며,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그의 13서신은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지 않았는가.

이것이 내가 열 명 앞에서든 수십만 앞에서든 동일하게 열과 성을 다해 설교하는 이유요, 거리 불문하고 달려가는 이유다. 한 사람만 변해도 세상이 변하니까.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엘살바도르(EI Salvador)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전시상황이었다. 가장 먼저 피부로 다가온 것이 차량 이동인데, 경찰 선도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길을 뚫으면 우리가 탑승한 승합차는 마치 곡예 하듯 그사이를 비집고 다니는 일이 매일 지속되었다. 도시 전체가 주차장처럼 차량이 많아서 그냥 나갔다가는 20분 거리를 2시간도 넘게 걸릴 수 있단다. 그러니 집회나 세미나 장소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완전히 진이 빠진다. 목사님은 “연일 007 영화를 찍는다.”고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셨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일은 국회의원 등 지도급 인사들이 참석한 힐튼 호텔 만찬 석상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이번 집회를 준

고 있었던 셈이다. 목사님은 목회 40년에 크게 깨닫는다면, 점점 부재가 낡은 사고지만, 지나간 것은 돌아볼 것 없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선포하셨다. “모든 거짓은 결국 다 드러났다. 우리는 오전에 경찰청에 들어가 경찰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거기서 걷지 못하는 경찰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났다. 표적이다. 내일은 TV 방송에 나가 1시간 방송설교를 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전쟁에 2등은 없다. 우리에게엔 오직 승리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것이 지금도 움직이며 역사하고 있지 않은가!” 호텔 만찬에는 국회의원 9명과 시장, 시의원들, 대형교회 목회자 및 방송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에

신적인 자세 없이는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인재들을 적극 유치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지극히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에 우뚝 서는 엘살바도르가 될 것입니다.”

비서실장, 국회의원들은 목사님의 메시지에 매우 놀라며 공감을 표했다. 비서실장은 목사님의 저서, “의욕을 상실한 자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 두 권을 요청하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고, 목사님이 자필로 사인한 책을 받아든 국회의원들은 책 제목에 크게 놀라워했다.

만찬장에 참석한 Visionario TV 방송사



2025 엘살바도르 쏘아빵고 야외집회 광경

비한 왈테르(Walter) 목사를 통해 대통령 아버지가 출석하는 교회를 통해 대통령과 연결하여 대대적인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물론 그 와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회 장소로 예정되었던 메인스타디움, 야구장 등이 취소된 일들이 교회협의회 내부 불협화음으로 정부가 발을 뒤로 뺀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만찬 석상에서 만난 대통령 비서실장에 드가르도(Edgardo Cardoza)의 말을 들으니 대통령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소천했고, 대통령은 이번 집회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복음 브로커들의 거짓말에 순진한 왈테르 목사가 속아 그동안 죽은 아버지가 살아서 일하

드가르도는 부켈레(Nayib Bukele) 대통령의 인사말을 대독하며 목사님의 엘살바도르 방문에 사의(謝意)를 표했다. 이날 목사님의 메시지는 방송과 신문을 통해 중계되고 대서특필되었다.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이 나라에 와보니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믿고 강력한 개혁정책을 전개하며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개혁을 수행하려 할 때는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시기상조라며 속도를 늦추라고 뒤에서 잡아끄는 자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혁명이란 따라오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 혁

장은 목사님에게 방송설교 프로그램 출연을 요청했고, 산타아나(Santa Ana) 교회로 초청한 빌리(Billy Amaya) 목사는 집회를 앞두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쏘아빵고(Soyapango) 야외집회를 배설한 마리오(Mario Granados Jr) 목사는 아버지가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음에도 기쁨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목사님의 방문을 감사했다.

목사님께서는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한 사람만 변화돼도 나라가 변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본연의 목표를 향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경찰청 세미나에서 사고로 걷지 못하던 경찰이 일어나 걸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서실장 에드가르도와 환담



엘살바도르 신문 및 방송 기자회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하2:19~22)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려진 후(왕하 2:11),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여리고 성읍에 머물렀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찾아와 문제를 호소합니다.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못하여 토산이 익지 못하나이다.”(왕하2:19). 여리고 성은 지리적으로는 좋은 땅이었지만, 물이 써서 땅의 소산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릇을 새로이 가져오고 그 속에 소금을 담으라”(왕하2:20).

엘리사는 가까이 흐르는 물이 아니라 물의 근원인 샘으로 가서 거기에 소금을 던졌습니다. 물이 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현상’일 뿐, 근본 원인은 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가 음식점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된다며 예배드려줄 것을 간청해서 이시대 목사가 그곳에 가니 성도분이 이런저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근처 빌딩이 거의 다 이사를 나갔고, 다시 들어온 회사들은 구내식당이 있어 손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음식이 나와 먹어보니 맛이 영 아니더라고요. 그러잖아도 의기소침해 있는 성도에게 맞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가만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동석한 다른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코로나 전까지는 주방장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주방장을 내보내고 주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맛이 푹 떨어졌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았습니다. 장사가 안된 것은 불황 때문도 아니고, 주변 회사들이 나가서도 아니고, 맛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시대 목사가 한마디 했대요. “그 주방장을 다시 데리고 오세요.”

남의 다리 굽지 마라 매번 굽어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 써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경우 말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목하면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야 개선됩니다. 똥파리가 낀다고 그것만 매번 쫓을 것이 아니라 개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듯, 거미줄이 낀다고 그것만 걷어낼 것이 아니라 거미를 잡아내야 하듯 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을 나타내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마10:29). 미물인 참새도 하나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죽여 산 우리들이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와시니라”(잠16:9).

여러분은 욕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의 친구 말처럼 욕의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참소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가 ? No, 그것은 눈에 보이는 2차적인 원인일 뿐,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욕을 단련하신 후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에 좌절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냈고, 다시 해후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창45:8).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는 열 번의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변심하여 다시 홍해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박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원인일 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사 영광을 받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즉 하나님이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롬9:15~18).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히 11:3). 즉 눈에 보이는

고난, 병, 고통, 환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 삶을 힘들고 쓰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물의 근원이 고쳐지니 하나님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왕하2:21) 하셨습니다.

인생이 몹시 쓰다면 나를 돌아봅시다. 인생의 열매가 없다면 나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지, 껄끄러운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고 서둘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방해요소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불쏘시개 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그럼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삶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거미줄을 없애지 말고 거미를 없애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화목입니다. 오죽하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5:18~20).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욥22:21~23)는 말씀이 우리 삶에 이뤄집니다. 망했으나 일어나고, 병들었으나 건강을 찾고, 잃은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히 멸망할 것이라”(신8:18~19)고 유언했고, 여호수아 역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수 23:8)고 신신당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이웃 나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그들은 알았기에 당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시 73:28).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만사형통, 난사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것은 가려울 때 남의 다리를 긁는 격입니다. 남 다리 굽지 말고 내 다리 굽어야 시원한 법입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려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세요(렘31:3).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약4:8).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불실 성도? 불매 성도!

고향 목포엔 3대 별미(別味)가 유명하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유명한 민어가 있고, 한 마리만 먹이면 기력 잃은 황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그리고 홍어가 그것이다. 개 중에 사친 홍어는 독특한 비주얼과 큼직한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기도 하다. 솔직히 필자 또한 어릴 적엔 청국장보다 더한 독한 냄새 때문에 먹기는커녕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잔칫날이 다가오면 아버님은 자전거에 홍어를 싣고 오셨다. 그리고 항아리에 짚을 깔고 홍어를 썰어 올리고, 또 짚을 깔고 홍어를 썰어 올려, 그렇게 홍어를 삭히기 시작하셨다. 10여 일쯤 지나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할 즈음이면 담장 너머에선 동네 주당(酒黨)들의 웅성거림이 거세지기 시작한다.

“거, 신 선생, 아직 멀었는가?”

“아, 맛들라든 죄까 더 기다려야제!”

아버님이 수협에 다니셨던 관계로 흑산도 홍어를 잘 감별해내셨다. 때문에 집에서 홍어를 삭히면 주당들의 기대치도 한껏 올라갔다. 침을 삼키던 이웃들의 애간장이 말랑말랑해질 즈음, 항아리 뚜껑이 개봉되면 그야말로 숨넘어갈 것 같은 지독한 악취가 후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들을 마비시키는 것만 같았다. 이제나저제나 그때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죄다 집안에 몰려들었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 홍어는 왠지 낯설고 혐오스러운 소음과 더불어 동네를 흥겹게 해주던 흥미로웠던 추억이 되었다.

신현명 목사

냄새와 생김새 때문에 그토록 멀리했던 홍어였는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을까? 기도원 식당에서 묵은김치와 수육을 곁들여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 무슨 오묘한 맛이란 말인가! 더구나 장을 편하게 하고, 간을 해독시켜준다고 하니 내게 딱 맞는 음식이 아닐까! 먹을수록, 씹을수록 기묘한 그 맛이었어! 그날 이후로 홍어는 죄에 음식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도 홍어와 같은 이들이 있다. 처음 첫 인상이 그닥 별로였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 말이다. 요새말로 ‘불매’라고 하던가? 반면에 ‘불실’도 있다. 볼수록 식상해지는, 볼수록 실망감을 안기는 그런 사람 말이다.

시인 나태주는 그의 시 ‘꽃꽃’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 너도 그렇다’

저녁마다 노랑진교육관에서 마주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 볼 때, 매일 반복되는 만남이어도 무척이나 반갑기만 하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닌, 성전 건축과 총회장님의 해외 집회를 위해 주의 나라와 의를 바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에서 진정 의에 주리고 목마른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진실로 ‘불실 성도’가 아닌, ‘불매 성도’들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금 은혜를 사모하여 교회 신문을 탐독하시는 당신 또한 불매 성도이리라!

:: 세상을 보는 창 ::

감정은 넘치고, 믿음이 말라버릴 때

우리는 가끔 감정이 폭발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럴 때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폭발하기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정이 폭발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십시오.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약1:19~20, 새번역).

이 말씀은 ‘사울 왕’과 ‘갈렙’을 생각나게 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 이후 그 마음이 시기와 분노로 불타올라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으며, 그 미움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점점 끊어내는 두꺼운 벽이 되어버렸다. 사울 왕의 겉모습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 진정한 믿음은 사라지고, 감정의 폭풍이 그를 집어삼켰으며 악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곤 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대신 자기 분노와 두려움에 길들어졌고, 결국 그 믿음이 말라버리고 말았다. 이

처럼 감정이 믿음을 압도할 때가 종종 있다. 이때 우리는 겉으로 충성하는 척하지만 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가나안 정탐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불신과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며 소리칠 때,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민14:24-새번역).

하나님은 갈렙의 ‘남과 다른 마음’,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마음을 기뻐하셨다. 갈렙의 마음에는 감정보다 믿음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진리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이 아닌 믿음을 기준 삼아 갈렙처럼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나쁜 감정이 넘쳐흘러도 우리의 믿음이 마르지 않도록!

이정금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자

누군가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왔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많아서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자금은 없습니다. 전문 지식이 있어서 방법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관련 지식도 없습니다. 대단한 권력자나 재력가의 인맥이 있으면 부탁해볼 텐데, 아는 권력자도 재력가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홍해를 갈랐고, 하갈은 방성대곡하여 목숨을 연명할 샘물을 얻었고, 히스기야는 학처럼 울며 기도하여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목놓아 부르짖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저 또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론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배운 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선진들을 본받아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보고 어찌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밤낮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쉬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도 쉬지 못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최성경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빈대 철학

청년 정주영이 인천 부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노동자 합숙소는 빈대가 우글거렸다고 한다. 빈대 때문에 편하게 잠을 자기 어려웠던 정주영은 식탁 위에서 잠을 자보기까지 했지만, 빈대는 식탁 다리를 타고 올라와 악착같이 피를 빨아먹었다고 한다. 그러자 정주영은 식탁 다리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담가버렸다. 빈대는 물을 건널 수 없으니.... 하지만 여전히 빈대가 물기에 도대체 어떤 일인가 보았더니, 빈대가 천장까지 기어 올라가 침대로 낙하하는 것이 아닌가. 그 후 정주영은 문제 앞에 포기하는 자들을 향하여 ‘빈대보다 못한 놈이다’라는 ‘빈대 철학’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정주영 회장은 피를 빨아먹기 위한 빈대의 집요함을 보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가 말한 ‘빈대보다 못한 놈’이라는 말은 욕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삶의 철학이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다. 병자는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신비한 이야기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물이 동할 때 자

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자신보다 병이 경한 자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연못으로 향한다. 가봐야 결과는 뻔한 것임에도....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를 찾아오셔서 치료해주신다.

인내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다. 마치 천장까지 올라가서라도 목적을 이루는 빈대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바꾸고, 길을 찾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신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눅18:1).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멈추는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끝까지 간 자만이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된다. 임택함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적극적으로 나이 드는 삶

오랜만에 대학생 때 친구들을 만났습니 다. 스물두 살, 스물네 살, 스물여섯 살이 었던 우리는 어느덧 마흔, 마흔둘, 마흔넷 이 되었지요. 시간 참 빠르다는 말이 수시 로 나왔습니다. ‘나이 드니까 체력이 딸린 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른다’, ‘사진 찍으 면 확실히 나이 든 티가 난다’는 등의 얘기 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저에 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저는 답했지 요. “좋아!”

저도 처음 맞이하는 40대가 낯섭니다. 거 울 속에 비치는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저 보다 40대의 제가 더 마음에 듭니다. 거짓 말이 아니에요. 20대 때 저는 약속 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일이십 분 씩 늦었고, 부끄럽지만 주일에배도 간당 간당하게 겨우 맞춰 갔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 제일 먼 저 도착하는 사람이 됐고, 현금위원 봉사 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예배 시작 전에 앉 아 있습니다.

자세도 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엔 어깨가

구부정하고 거북목이 심했는데요, 지금은 반듯하고 곧은 자세로 유명합니다. ‘어쩔 그렇게 자세가 좋냐’는 얘기를 수없이 듣 고 있어요. 빠근한 몸을 풀어주려고 잠자 기 전에 짧게 스트레칭을 한 지 4년이 넘 었거든요. 귀찮은 날엔 5분 만이라도, 여 유로운 날엔 30분씩 공들여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어느새 20대 때보다 바르고 예쁜 자세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해 를 기념하며 태어나 처음으로 돈과 시간 을 들여 일대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았 습니다. 미리미리 근육을 저축해두지는 마음으로도. 초반엔 일주일에 두 번, 가을 즈음 지나서는 일주일에 세 번, 연말이 되어 서는 혼자 하는 운동까지 더해 일주일에 다섯 번 근력 운동을 했죠. 저의 뽐뽐해진 허벅지를 만져본 친구들마다 감탄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 런데 유튜브에서 본 어느 70대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서 매해 응 급실에 실려 갔던 그녀는 50대 후반이 돼 서야 근력 운동을 시작했대요. 아프다고

누워있기보단 박차고 일어나 헬스장에 간 거죠. 운동한 지 14년이 된 지금은 어느 프로선수 못지않은 근육과 힘을 갖고 있 고 웬만한 젊은이보다 훨씬 탄탄하고 아 름다운 몸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70대도 이와 같길 바라고 있어요.

올해는 수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서른 네 살의 저는 접영을 못하고 그만뒀지만, 지금의 저는 접영을 곧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40대 중반이 될 즈음엔 얼마 나 더 잘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수영 실력 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는 양 도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30분, 가끔 1시간 기도했었는데 올해는 노랑진 교육 관에서 한 시간 반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세월을 피해 갈 순 없죠. 그렇지만 저는 시간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적 으로 나이 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살 한살 꿈꾸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이 들고 싶습 니다. 육체도 영혼도 신앙도 끊임없이 성 장하길 원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 람은 날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신은혜

Good News

의학의 발달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 이야 기들 하지만, 변함 없는 한 가지 진리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장수자 므두셀라는 969세 까지 살았지만 결국 죽었고, 신하들에게 불로초를 찾아 나서게 했던 진시황제도 죽었으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호걸

들도 죽음을 맞이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사는 길 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요11:2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

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 는 것이 ‘웰 다잉(Well dying)’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웰빙(Well being)’과 ‘웰 다잉’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웰빙’이요,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이 ‘웰 다잉’입니다.

상화평 목사

:: 주님을 향한 노래 ::

주님께 받은 은혜

기도원 집회 때 헌금송으로 연주된 ‘꼭바 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을 들으며 눈물 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송명희 시인이 작사한 곡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장애로 인해 꼭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는 아픔을 솔직 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그런 자신 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가 사 한 절 한 절에 질게 담겨 있습니다. 현 재까지 그분은 200여 편이 넘는 찬양을 작시하고, 간증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에게 아무런 장애도 없는 건강한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한 편으론 이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 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은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란 어느 목사님의 간증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 님의 고향은 인천 용유도로, 섬사람들이 으레 그렇듯 무속신앙이 즐비한 환경에

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집안에서 가장 먼 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사가 되기로 결 심까지 했는데, 군 복무 시절에 갑자기 어 머니가 내립곳을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핍 박과 함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 다. 어머니는 맨발로 외작두를 타며 무형 문화재 급으로까지 평가받는 영험한 무 당이 되었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 족들도 다 어머니 편에 서서 핍박했습니 다. 결국 집에서 쫓겨나와 타지에서 생활 하면서도 어머니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 았더니 마침내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 나 권사님이 되셨고, 아들은 목사가 되었 습니다.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핍박은커녕 오히려 칭찬 을 듣고 차비와 용돈을 받기도 했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더 성숙 하고 굳건한 믿음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 아 죄송스러웠습니다.

요즘은 SNS 문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사

람들이 남들과 비교하는 게 일상이 되었 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전부인 양 열 등감과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는 이미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 혜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 르신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고, 우리가 미 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안계훈 원장님이 쓴 교회 신문 글(1143호)에 보 니 건강한 육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 면 51억 정도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된 것 은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거기에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도 분명 있 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걸 음 더 장성한 자녀로서 어떡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기쁘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 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 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 길찌니”(히12:28).

이호민 전도사

:: 참된 깨달음 ::

성찰과 통찰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 아봅니다. 이 시간은 제 삶의 방향을 점 검하고 바로잡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삶을 이끄는 두 가지 중요 한 눈, 바로 ‘성찰과 통찰’을 사용합니다. ‘성찰’은 내면의 어둠과 부족함을 정직 하게 바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타인을 탓하거나 환경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제 마음과 행동을 깊이 반성합니다. 부 정적인 생각이나 좌절감, 세상에일에 마음 을 빼앗길 때면 성찰의 시선으로 저를 살핍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 에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 순 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성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통찰 은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성찰 이 저의 고만을 깨닫게 했다면, 통찰은 용서와 화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길 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성찰이 저를 겸 손하게 만들었다면, 통찰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삶의 균형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성찰이 눈물을 흘리 며 회개하게 했다면, 통찰은 그 눈물 너 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했습니 다. 불안한 마음속에서 성찰이 저를 불 들어 주었고,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통찰은 다시 걸어갈 힘을 주었습니다. 성찰은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만, 통찰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성찰은 제 안을 비추는 거울이 고, 통찰은 그 거울을 따라 앞으로 나아 가게 하는 등불입니다. 성찰은 제 작은 신음까지 하나님께 아뢰게 했고, 통찰은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듣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 니다. 언약의 말씀 안에서 성찰로 제 마 음을 살피고, 통찰로 하나님의 길을 따 라 걷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삶을 인도하 셧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찰과 통찰이라는 두 눈으로, 주님 안에 서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양은정 생도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